

영재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노명숙* · 전주림**¹⁾ · 온안국***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학습·심리상담 연구교수** ·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Core Competencies in Gifted Youth

Roh, Myungsook* · Jun, Jooram**¹⁾ · On, Ankook***

*VISION College of Jeonju, Dept of Child Welfar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ept of Teaching & Learning·Counseling,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Psychiatry Clinical psychologis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gifted adolescents' self-concept, core competencie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rrelation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ore competencies of gifted youths. Therefore we surveyed gifted youths in Jeonbuk regions concerning self-concept, core competencie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21 sampl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o understand a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ore competencies,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PSS 21.0.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as follows. First, when a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gifted youth's self-concept, core competencie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cond, the results reveal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gifted youths had a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concept and core competencies. Finally,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uggestions of desirable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gifted adolescents.

Key words: 영재 청소년(Gifted Youth), 자아 개념(Self Concept),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I. 서론

영재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사고방식, 다른 추론 구조로 작동하는 특징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Jeanne Siaud-Facchin, 2013).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발골은 중요한 사회적 과업이다. 영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복잡한 사회에서 영재들의 역량 발휘는 로봇 기술의 개발, 의학적 치료 기술 개발, 지구의 온난화 대응책 등 인간에게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발명하고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이란 특정 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Hwang, 2018). Walberg는 14세기에서 20 세기에 태어난 기술, 과학, 종교,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인물 200 명의 아동기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다재다능, 집중력, 인내력, 우수한 의사소통 기술, 보통 이상의 지능지수 등을 밝혀냈고, 그들의 다수는 윤리적이고 민감할 뿐 아니라 낙천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Lee et al., 2007). Lee et al(2010)는 차세대 영재기업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영재성 역량으로 창의력과 도전정신, 지식재산 전문 역량으로 탄탄한 수학, 과학지식, 지식재산전문성, 학습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력, 기업자 역량으로 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업 윤리를 제안하였다. 또한 Lee et al(2013)는 핵심 3대 역량으로 발명가적 지식기술 역량, 발명가적 통합창의 역량, 발명가적 인성 역량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들의 핵심역량으로 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함에 그 요소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 네 가지 요소들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들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여러 보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왕성한 호기심과 정보 습득 처리의 신

속성, 의문을 자주 제기하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행위(Yoon, 2010), 뛰어난 아이디어 처리 능력과 다양한 흥미, 그리고 이 흥미를 상당 수준까지 개발하는 능력(Lee, 2000), 뛰어난 기억력, 관찰력, 이해력, 풍부한 어휘력과 표현력, 광범위한 독서능력(Song, 2009) 등이 있다. 둘째, 영재들의 특성으로 창의성은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영재들은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통찰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Ruco, 2004). 또한 풍부한 상상력과 언어적 유머감각(Coleman & Cross, 2001)도 그들의 장점 중 하나로 돋보이는 점이다. 셋째, 영재들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을 갖는데, Clark(2007)의 연구에 의하면, 영재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지도성이 풍부하고 타인과 잘 교제하나 집단의 행동 양식을 쉽게 추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실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영재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특성을 지니며(Park, 2005), 그들의 학습 영역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일반 학생들보다 자발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isemberg & Zimmerman, 1992; Moon, 2000). 이처럼 영재의 네 가지 핵심 역량은 그들의 주된 강점으로 충분히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

인간은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Kim, 2005)는 가정 하에 보면, 위 네 가지의 핵심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영재들의 자기 지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자아개념(self concept)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아개념은 능력, 태도, 느낌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개념으로 긍정이나 부정,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양극으로 연결된 연속성의 성질을 뜻한다(Wikipedia., 2018). 즉, 영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은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해 나가는 데 중요한 근본적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영재임을 고려해본다면, 긍정적인고 안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Harter, 1983)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학업 성취나 사회화, 그리고 동기유발의 잠재적 촉진제로서 기능한다(Jang, 2012). 영재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의 역량에 유리하고 수준이 높은 것이 확인된 바 있다(Jung,

2008; Oh, 2011). 영재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자아상태와 자아의 탄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대처양식을 지니며(Choi, 2013), 일반아동에 비해서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Lee, 2015).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영재들의 자아개념은 일반아동에 비해 전반적인 자아개념 수준이 긍정적이며 높다고 보고하였다(Ablard, 1997; Hong, 2014; Hwang, 2015; Jun, 2000; Jo, 2002; Jang, 2012; Kng, 2011; Kim, 2014).

영재들의 자기 지각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아개념과 위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네 가지, 지적 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재들의 자아개념과 지적능력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 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나, 일반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와 가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기 지각의 전체적 총체(Song, 1998)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자아개념과 창의성의 관계를 보면, 영재 아동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창의성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혀졌는데, 즉 개인의 행동과 성격과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은 창의적인 인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Kim, 1987)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창의성이 높은 반면 자아개념이 낮으면 창의성이 낮다(Kim, 1979)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개념과 창의적 리더십 간의 관계 연구에서, 아동의 창의적 리더십과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Oh, 2011). 그리고 영재들의 역량 중 자기주도학습자의 학습특성 중 하나로, Park & Hyun(2002)은 학습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꼽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개인심리적 변인인 자아개념이 핵심역량에 중요한 변인일 것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더불어 자아개념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를 가정하고, 긍정심리자본이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심리자본은 최근 강점 관점의 심리학 영역에서 주목 받는 개념 중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영재들이 자아개념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긍정심리자본의 개인내적 변인이 완충작용

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려지나, Luthans와 Avolio(2007)는 과업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며,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필요에 따라 목표 경로는 재설정하며, 문제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에도 성공을 위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상태라 하였고, Lee와 Choi(2011)는 긍정심리자본이란 과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때,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개인의 동기부여적인 역량이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란, 어떠한 과업을 수행 할 때 목표 혹은 성공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나 장애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긍정심리자본이 영재들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창의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Chung, 2016)으로 보고된 바 있고,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은 영재들의 핵심역량인 지적능력, 창의력, 리더십, 자기주도성을 발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ee, Baek, & Kim, 2013). 그러나 지금까지 영재들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핵심역량(지능, 창의성, 리더십, 주도력) 간의 관계를 각 하위변인별로 보다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긍정심리자본과 핵심역량의 관계에서 각 하위변인별로 관계와 영향력이 검증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긍정심리자본의 변인이 측정과 개발이 가능하며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trait)과 달리 학습, 훈련 등을 통해 개발 가능한 상태적(state-like) 개념(Luthans, 2002)으로 연구 결과를 실천적 관점에서 적용하고 제언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영재들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간의 매개변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 결과 자아개념이 다소 낮게 보고된다 할지라도, 개인내적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훈련하고 향상시킴으로써 핵심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의 자아개념, 핵심역량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영재 청소년들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Walberg는 14세기에서 20 세기에 태어난 기술, 과학, 종교,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을 남긴 인물 200명의 아동기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공통인 특성은 다재다능, 집중력, 인내력, 우수한 의사소통 기술, 보통 이상의 지능지수 등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다수는 윤리적이고 민감할 뿐 아니라 낙천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Lee et al, 2007). Lee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핵심 3대 역량으로 발명가적 지식기술 역량, 발명가적 통합 창의 역량, 발명가적 인성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재들의 요소는 영재 특성을 체크하는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Kim(2014)은 '2014년 발명영재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매뉴얼'에서 중학생용 발명영재 특성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일반학생과 발명영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영재의 핵심역량으로 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은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겠다.

첫째, 영재들의 지적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Terman과 Oden(1947)에 의하면 영재들은 나이에 비해 빈틈없는 행동을 하고,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을 보이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며, 말을 유창하게 한다. 읽기 능력이 뛰어나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 언제나 요점을 잘 이야기한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남보다 뛰어나려는 야망이 있다. 시험 답안을 잘 쓴다. 명문학교에 다닌다.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 신뢰할 만하다. 올바른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 등의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Kang, 2011 recited). Renzulli(1978)는 영재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수준 높고 풍부한 어휘구사력, 빠른 학습속도, 많은 독서량, 호기심, 폭넓은 지식, 비판적인 수용을, Rim(2012)은 영재의 중요한 특성으로 메타 인지와 창의성을 주장하며, 상위인지전력이 높은 것은 영재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상위인지에 있어 영재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이 능숙하다.

Parkinson(1990)은 영재의 70%는 복잡한 생각을 선호하며, 일상적인 것에 짜증을 내고 지루해 한다고 하였고(Linda, 2008 recited), Silverman(1993)은 전형적인 영재집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영재는 대개 모든 분야에 걸쳐 지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재는 언어 발달이 빠르고 그 수준이 높으며 언어적 표현이 유창하다. 풍부한 독서로 인해 또래보다 앞선 독서 수준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번 보고 들은 것을 곧바로, 자세히 기억한다. 또래에 비해 학습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 수월하게 학습한다. 논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추상적 상징적 사고를 즐긴다.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생각을 즐기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흥미와 취미가 다양하면서도 특정분야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Kang, 2011). 이처럼 영재들은 높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면서(Hwang, 2015), 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Linda 2008). 이를 종합해보면, 영재들은 완벽주의 성향, 관찰력, 흥미와 열정, 뛰어난 인지능력, 메타인지 및 창의성, 복잡성 선호, 언어의 유창성, 지적 호기심 및 성취요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Lee(1999)에 의하면 과학 영재가 보이는 전형적 특징으로 영재들은 탁월한 사고능력을 보이며, 아이디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 특정 사실로부터 일반화를 쉽게 이끌어 낸다. 지적인 것에 다양한 흥미를 갖고 이 흥미를 상당 수준까지 개발한다. 또한 Yoon(2010)은 영재의 특성을 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행동 특징들을 정리하였는데, 지적 특성으로 정보 습득이 빠르고 호기심이 많고 진지하며 의문을 자주 제기하고 질문, 탐색 및 탐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Strip(2000)에 의하면, 영리한 학생은 개념을 파악할 때까지 사실을 축적하면서 수렴적, 직선적으로 따라야 할 순서가 제시된 학습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영재학생은 확산적으로 빠르게 사고하며 사고의 몇 단계를 뛰어넘는 경향을 보이며 복잡성과 모호한 답변을 오히려 편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또한 Song(2009)은 영재의 특성을 지적, 정의적, 심리적 영역으로 나누면서, 지적 영역의 특성으로는 기억력, 관찰력, 이해력이 뛰어나고 학습 속도가 빠르며 지적인 욕구가 강하고 높은 지능을 보이며 어휘력과 표현력이 풍부하고 광범위한 독서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Clark(2007)은 영재들의 특성을 인지적, 정의적, 신체·감각적, 직관적으로 나누면서, 인지적 특성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

고차원적 이해, 다양한 관심과 호기심, 높은 수준의 언어발달, 탁월한 정보처리 능력, 빠른 사고 과정, 사고의 유연성, 종합적 통합성, 사고 과정의 다양한 패턴이 조기에 나타남, 개념적 틀의 형성이 조기에 발달함, 자신과 타인을 향한 평가적 접근, 탁월한 집중력을 꼽았다.

둘째, 영재들의 창의성에 관한 선행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생성, 통찰, 문제 해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Ruco, 2004). 최근 뇌 영상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의적 사고에 관여하는 뇌 부위는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Kang, 2018), 창의력 사고를 할 때에 우뇌에서 알파파가 더 높게 나타난다(Grabner et al., 2007). 창의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영재 아동은 또래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언어적 유머 감각을 보이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작하고 수정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동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Cross, 2001).

셋째, 영재들의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영재들은 지도적 측면에서 지도성이 풍부하며 타인과 잘 교제하나 집단의 행동 양식을 쉽게 추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실천하려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Clark, 2007). Kim & Jun (2006)은 영재와 뛰어난 리더의 공통된 특성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모두 문제 해결에 능숙하며, 애매모호함을 참아낼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어 감각과 사회성이 좋으며,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였다. Kim(2015)은 리더십이란 개인이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 내 특성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개인 간 특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과 추진, 새로움에 대한 도전정신,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정직과 신의, 과제책임감 등의 내재적 요소와 원만하고 영향력이 있는 대인관계와 조직능력,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협력 등의 외현적 요소들로서 이들 요소들이 개인 삶의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라고 하였다(Kim, 2015).

넷째, 영재들의 자기주도적 성향에 관한 선행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Park(2005)은 초기의 자발적 경험이 과학적 창의성의 시작이라 하면서, 창의적인 과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즐겨하던 과학 활동이 그들의 지적 성장을 일구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삶의 전부가 되면서 결국에는 창의적 성취를 이

끌어 낸다고 하면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특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영재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일반 학생들보다 자발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isemberg & Zimmerman, 1992; Moon, 2000). Pesut(1990)는 학습자의 주의 과정, 인식 과정에 대한 인식, 자기 강화, 자기 평가, 자기 점검의 과정을 아우르는 ‘자기 조절적인 상위 인지’ 과정이 창의성의 상위 인지적 과정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자기주도 학습이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암시하였다.

이러한 역량(competency)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증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자(Spencer & Spencer, 1993), 개인 혹은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개인의 성과창출 행동이다(American Compensation Association, 1996). 그리고 그 역량은 인간은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Kim, 2005)는 가정 하에 볼 때, 이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능력, 태도, 느낌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개념인 자아개념(self concept)과 연관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연관성은 여러 선행연구들(Jung, 2008; Jang, 2012; Oh, 2011)이 증명해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재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이 상관있다는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다. 영재 학생의 지적능력에 대한 자각과 자아개념간의 관계가 상관있다는 연구(Kim, 1999), 아동의 자아개념과 창의성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밝히면서 개인의 행동과 성격과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은 창의적인 인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Kim, 1987),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창의성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Kim, 1979) 등이 있다. 또한 자아개념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로, Oh(2010)는 아동의 창의적 리더십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연구에서 아동의 창의적 리더십과 자아개념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영재들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변인으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미(Gecas, 1982)하는 자아개념에 주목하고자 하며, 영재들의 네 가지의 핵심역량-지적능력, 창의력, 리더십, 자기주도)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영재들의 자아개념이 중요한 변인일 것이라 예측하는 바이다.

Lee et al(2011)는 미래 사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요소 외에 정의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적 요소 중 하나인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 신체, 행동 등에 관해 지니고 있는 가치, 견해, 신념이다(Lee & Koh, 2006).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자신이 상황에 대한 지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Oh, 2011),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성공적이며,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이며, 생존을 위한 결정적인 가치가 된다(Lee & Koh, 2006). 영재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편이며, 외부의 통제 없이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안다(Jeon, 2000). 영재아가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제시되어 왔다(Knepper, Obrzut, & Copeland, 1983, Yoon, 2000).

그리고 영재들의 자아개념은 역량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Chung(2008)에 의하면 통합창의성점수와 창의적 성격은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적 자아가 긍정적일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Sisk(1993)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Sisk는 창의적 리더십 모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위험을 감수하려는 용기, 창의적 행위에 대한 몰두, 창의적 리더가 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인식과 평가가 포함된 재능 인정 등으로 구성요소를 언급하였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밑바탕이 된다(Oh, 2011). 이를 통해 볼 때, 볼 때, 영재의 건강한 자아개념은 그들이 지적 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의 역량을 발휘해나가는 데 근본 토대이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생각된다. 따라서 영재를 판별하고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국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핵심역량인 지적요소,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영재의 정의적

요소인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의 역량에 미치는 결과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 리더십, 창의성 등 개인의 핵심 역량 창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Chung, Park & Seo, 2011; Chung, 2016; Kim & Baek, 2014). 이러한 선행보고는 본 연구의 모형 설정에 기초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영재들의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인으로 핵심역량 강화의 영향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낮거나 불분명하여 혼란의 심리 상태를 겪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자아개념과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과 핵심역량 간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재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를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지 매개모형을 가정하고, 그 가정된 매개관계를 탐색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청소년 영재 총 221명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핵심역량,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 121명(54.8%), 여학생 75명(33.9%)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이 83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66명(29.6%), 중학교 1학년이 29명(13.1%), 중학교 2학년이 12명(5.4%), 중학교 3학년이 3명(1.4%)순이었다. 가족구조에서 양부모는 171명(77.4%), 한부모는 19명(8.6%)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자아개념, 긍정심리자본 및 핵심역량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자아개념이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개념, 긍정심리자본, 핵심역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분석은 Baron & Kenny가 제시한 방법에 기초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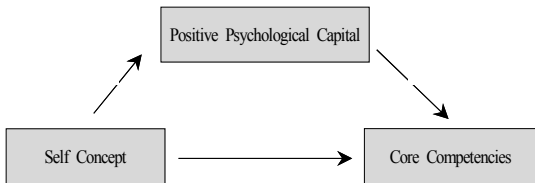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model

3. 측정도구

1) 핵심역량

본 연구에서 영재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영재학급의 영재 선발 관련 특성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였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교육청 영재교육 담당자 및 교육 전문가에 의해 문항타당도 검토 작업을 거쳐 20문항으로 핵심역량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지적능력(7문항), 창의성(6문항), 리더십(4문항), 자기주도성(3문항) 총 4개의 항목으로 나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줄 안다.”,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인과 관계를 빨리 파악한다.”, “나는 관심 영역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등이 있고, “창의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관심 영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등, “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규칙을 만들고 집

단 활동을 이끈다”,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학습하기를 좋아한다.”, “성과와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을 모두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 하위변인 각각에 관하여 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의 Cronbach’s α 는 .96로 나타났다.

2)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는 영재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다. 영재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Song(2008)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일반적 자아개념을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으로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신을 갖는 편이다”,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쉽게 내 마음을 결정하는 편이다”, “나는 ‘현재의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등이 있다. 이 척도에서는 척도 응답을 모두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모습에 관한 지각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3)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수는 영재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이다. 영재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Lim(2014)이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PC :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자기효능감(5문항), 낙관주의(5문항), 희망(5문항), 회복탄력성(3문항)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능력에 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이며, “낙관주의”는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아니라 미래결과의 긍정적 도출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전망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희망”이란, 목표에 이르는 길을 탐색하고 힘을 발휘하는 사고

과정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 “현재 나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이 척도에서는 척도 응답을 모두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어떠한 과업을 수행 할 때 목표 혹은 성공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나 장애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인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Cronbach’s α 는 .96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응답자인 영재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모델에 대한 설명력과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분석 절차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며, 동시에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본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감소하면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핵심역량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매개변수 검증은 위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매

개변수의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아개념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인, 핵심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자아개념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개념이 핵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긍정심리자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핵심역량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1.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와 변수간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긍정심리자본 및 핵심역량의 변인과 하위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Mean	SD
Self Concept	3.89	0.67
Self-efficacy	3.98	0.8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01	0.75
Optimism	4.10	0.73
Hope	3.96	0.90
Resilience	4.02	0.71
Total	4.09	0.75
Intelligent ability	4.06	0.76
creativity	3.92	0.82
Leadership	3.98	0.84
Self-direction	4.03	0.70
Total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아개념, 핵심역량,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정적상관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3).

Table 2. Credibility Reliability of Sub-Variables

		Number of items	Credibility Reli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 Concept	10	.85
	Self-efficacy	5	.94
	Optimism	5	.85
	Hope	5	.89
	Resilience	3	.83
	total item	18	.96
Core Competencies	Intelligent ability	7	.92
	creativity	6	.89
	Leadership	4	.84
	Self-direction	3	.80
	total item	20	.96

Table 3. Correlation with the Total-Variables

	Self Concep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re Competencies
Self Concept	1	.619**	.53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619**	1	.725**
Core Competencies	.537**	.725**	1

* p<.05, ** p<.01, *** p<.001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재들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그리고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를 보면, 자아개념은 핵심역량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54, p < .01$), 긍정심리자본과도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 = .62, p < .001$). 긍정심리자본과 핵심역량간의 관계는 정적상관을 보였다($r = .73, p < .001$).

영재들의 자아개념이 강할수록 핵심역량(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재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아개념, 핵심역량,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정적상관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 핵심역량, 긍정심리자본 하위변인들의 단순상관관계에서도, 모든 변수에서 정적상관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영재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영재 청소년들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고, 동시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면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핵심역량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개념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인, 핵심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자아개념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개념이 핵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긍정심리자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핵심역량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 = .62, t = 11.32, p < .001$),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종속변인인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74, t = 13.46, p < .001$). 2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 = .54, t = 9.13, p < .001$), 3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모형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조건에 충족하며,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핵심역량을 29% 설명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을 포함한 경우 62%를 설명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5.54(p < .001)$ 로 유의하기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

Table 4. Correlation to Sub-Variables

	Self Concept	Intelligent ability	creativity	Leadership	Self-direction	Self-efficacy	Optimism	Hope	Resilience
1	1								
2	.523***	1							
3	.471***	.857***	1						
4	.557***	.682***	.716***	1					
5	.571***	.610***	.591***	.734***	1				
6	.530***	.764***	.734***	.681***	.595***	1			
7	.558***	.637***	.546***	.555***	.475***	.689***	1		
8	.578***	.743***	.693***	.670***	.578***	.808***	.813***	1	
9	.619***	.748***	.676***	.662***	.569***	.803***	.927***	.942***	1

* p<.05, ** p<.01, *** p<.001

로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각 핵심역량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개념과 지적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62, t=11.32, p<.001$),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가 종속변인인 지적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75, t=13.50, p<.001$). 2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지적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52, t=6.76, p<.005$), 3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지적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모형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조건에 충족하며,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지적능력을 27% 설명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을 포함한 경우 61%를 설명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12(p<.001)$ 로 유의하기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지적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로 나

타났다.

자아개념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62, t=11.32, p<.001$),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가 종속변인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72, t=11.99, p<.001$). 2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47, t=7.66, p<.005$), 3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모형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조건에 충족하며,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창의성을 22% 설명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을 포함한 경우 54%를 설명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11(p<.001)$ 로 유의하기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ore Competencies of Gifted Youth

		SE	β	t	F	R ²
1step	Self Concep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0	.62	11.32***	128.17***	.38
2step	Self Concept ->Core Competencies	.13	.54	9.13***	83.429***	.29
3step	Self Concep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Core Competencies	.12 .06	.08 .74	1.48 13.46***	168.784***	.62

* p<.05, ** p<.01, *** p<.001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Intelligent Ability of Gifted Youth

		SE	β	t	F	R ²
1step	Self Concep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0	.62	11.32***	128.17***	.38
2step	Self Concept -> intelligent ability	.05	.52	6.76**	77.21***	.27
3step	Self Concep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Intelligent ability	.04 .02	.06 .75	.06 13.50***	163.72***	.61

* p<.05, ** p<.01, *** p<.001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reativity of Gifted Youth

		SE	β	t	F	R ²
1step	Self Concep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0	.62	11.32***	128.17***	.38
2step	Self Concept -> Creativity	.04	.47	7.66**	58.59***	.2
3step	Self Concep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Creativity	.04 .02	0.2 .72	.40 11.99***	121.44***	.54

* p<.05, ** p<.01, *** p<.001

Table 8.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eadership of Gifted Youth

		SE	β	t	F	R ²
1step	Self Concep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0	.62	11.32***	128.17***	.38
2step	Self Concept -> Leadership	.03	.56	9.57***	91.57***	.31
3step	Self Concep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Leadership	.03 .02	.20 .58	3.22** 9.25***	107.48***	.51

* p<.05, ** p<.01, *** p<.001

Table 9.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Self-Directed Ability of Gifted Youth

		SE	β	t	F	R ²
1step	Self Concep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0	.62	11.32***	128.17***	.38
2step	Self Concept -> Self-directed ability	.02	.57	9.95***	99.06***	.32
3step	Self Concep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Self-directed ability	.03 .01	.32 .41	4.69*** 5.99***	75.87***	.42

* p<.05, ** p<.01, *** p<.001

자아개념과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62, t=11.32, p<.001$),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가 종속변인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58, t=9.25, p<.001$). 2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56, t=9.57, p<.001$), 3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0, t=3.22, p<.005$). 자아개념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가 작았다(2단계 $\beta=.56 >$ 3단계 $\beta=.20$). 본 모형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조건에 충족하며,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리더십을 31% 설명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을 포함한 경우 51%를 설명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06(p<.001)$ 로 유의하기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62, t=11.32, p<.001$),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가 종속변인인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1, t=5.99, p<.001$). 2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eta=.57, t=9.95, p<.001$), 3단계에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2, t=4.69, p<.001$). 자아개념이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가 작았다(2단계 $\beta=.57 >$ 3단계 $\beta=.32$). 본 모형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조건에 충족하며,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자기주도성을 32% 설명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을 포함한 경우 42%를 설명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13(p<.001)$ 로 유의하기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재들이 지각한 자아개념이 핵심역량-지적능력, 창의력, 리더십,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긍정심리자본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 모형의 결과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의 자아개념, 핵심역량, 긍정심리자본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재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은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재의 자아개념과 긍정심리자본의 요인이 건강하고 그 수준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인 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 사회를 주도해나갈 영재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확고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보와,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 신체, 행동 등에 관해 지니고 있는 가치, 견해, 신념인 자아개념(이경화, 고진화, 2006)을 긍정적 혹은 건강하게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가족, 학교 및 환경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아개념을 형성해나가는 청소년 시기임을 고려해볼 때, 특히 가족의 영역에서는 성공한 영재 부모들의 특성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성취의 가치를 강조하며 그러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Olszewski-Kubilius, Kulieke, Willis & Krasney, 1989)를 충분히 해주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지(Park, 2014)를 통해 격려 받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영재들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일환의 연구로 긍정심리자본이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ung, 2016)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영재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완전매개로 나타남에 따라, 영재 청소년의 핵심역량인 네 가지 지적능력, 창

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자아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심리자본에 달려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영재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그들의 핵심 역량 네 가지-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의 발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재들의 핵심 역량 강화에 무엇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 네 가지 요소들의 수준이 높은 영재일수록 영재 학생들은 자신의 핵심역량-지적 능력, 창의력, 리더십, 자기주도성을 발휘해 나감에 있어서 다소 자아개념이 부족할지라도 잘 극복해나가고 그 역량을 잘 발휘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는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그 때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을 충분히 갖춘다면, 그들은 자신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긍정심리자본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다 충분한 상태로 역량 발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일반적 자아가 긍정적일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Chung, 2008)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밑바탕이 된다(Oh, 2011)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본 연구는 영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심리내적인 요인으로 자아개념과 긍정심리자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영재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의 내적 특성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혹은 영재교육 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즉 영재성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도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경험하는 영재 청소년 학생들에게 영재교육 관련 교사 혹은 상담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원을 통해 영재들의 지적능력과 창의성을 깨우고 잠재력을 발휘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는 영재교육 분야에서 접목이 가능하다. 영재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형성이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과 함께 중

요한 발달과업으로 주로 지적되는데, 이에 구체적으로 자아개념과 긍정심리자본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실천하여 안정감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과 급속도로 발달하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시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6년 전 세계 정보의 총량이 16제타바이트(Zettabyte, ZB)로, ZB는 1테라바이트(Terabyte, TB, 1,000GB)가 10억 개로 계산된다(Daily Economy, 2018). 그리고 2016년 3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지켜보면서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미래의 인제상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교육의 방향도 대전환되고 있다. 2015년 4월 핀란드에서는 초·중학교에서 과목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던 것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4C를 가르치겠다고 하였다. 즉,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목과 같이 나누었던 것을 없애고 주제나 화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예컨대 수업 주제가 ‘미세먼지’일 경우 과학, 사회, 보건, 국어 등 과목이 내용을 함께 배우는 융합 수업의 방식이다(Daily Economy, 2018). 이제는 로봇 기술의 발달, 정보화의 급변화로 인해 더욱 미래 변화는 예측불허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과 인재 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영재교육이 국가 전체의 교육 및 우수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미래의 리더를 길러내는 데 중요하다는 이유(Jin & Cha, 2004), 영재교육의 전체적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공교육 체계 내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세워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기존의 영재교육에서 영재학생을 위한 지식중심프로그램의 개발에 편중된 것을 보완하여 영재학생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영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 이 연구가 기초자료로 참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의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는 연령의 한계점을 갖고 해석해야 한다. 이에 유아부터 성인기에 접어든 영재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다양하게 표집하여 동일한 모델 검증에 통해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본 연구의 모형을 기반으로, 영재들 중 긍정심리자본이 뛰어난 정도로 높게 지닌 영재 청소년들의 주관적 경험들을 살핌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의 발현과 관련된 요인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견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밝히고 분석하는 데 그쳤으나, 연구방법론의 확장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변수들과 영재들의 행동적 특성을 보다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재 청소년들이 보이는 다양한 역량에 관하여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종단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시간 변화에 따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영재들의 성장과 발달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영재 청소년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로의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긍정심리자본의 발달적 특성을 추적해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영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연구의 영역을 체계화하고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D. H., & Jung, J. W. (2010). Influencing Factors on Deliberate Practice among Musically Talented Adolescents: On Passion and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3), 947-966.
- Avey, J. B., Reichard, R. J., Luthans, F., & Mhatre, K. H. (2011).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Attitudes, Behaviors and Performa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2*(2), 127-15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hung, D. Y., Park, K. H., & Seo, J. D. (201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dership Performance.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66*, 401-428.
- Chung, J. K. (2011). Personality Type and Perfectionism Characteristics of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Gecas, V. (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8*, 1-33.
- Han, S. H.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New York: Wiley.
- Hwang, M. R. (2015). Case study of counseling program for the gifted managed in education office. *Soongsil University Gifted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5*(2), 45-69.
- Hwang, J. W. (2018). A Study on the K-CESA Core Competenci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at Junior College. *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4*, 113-139.
- Hong, J. K. (2014). Counseling of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Youth Behavior Research, 19*, 35-53.
- Jang, H. 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gifte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Jeanne Siaud-Facchin (2013). Psychology of gifted. (H. E. Chung Mia, Trans.), Seoul: Waigeli.
- Jeon, E. S. (2015). Teaching Styles and Learning Environments Preferred by Gifted compare with Norm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in, S. U., & Cha, J. H. (2004). Needs Analysis of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for Gifted and General Students at Korean Middle School,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121-137.
- Jo, Y. J. (2002). The Self-concept comparison study of gifted student and genera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Jang, S. B., & Tak, J. K. (2018).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Job Craft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search*, 21(1), 31-51.
- Jung, J. Y. (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reativity: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in th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Jung, S. Y. (2008). The Relationship with Creativity and Self-concept of the Inf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 Kang, M. S. (2011).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Brain-scientific Interpre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K. W. (2018). The Neural Basis of Creative Thinking Process in the Brain, *Gifted and Gifted Education*, 16(4), 53-77.
- Kim, E. S., & Baek, Y. J. (2014).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Creativity.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38(1), 93-122.
- Kim, G. Y., (2014). Development of Creative Personality Inventory of Middle School Invention Gift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H. S. (2017). A Correlation between Overexcitability and Self-Concept of Gift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W.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s of teacher and student toward student's cognitive ability and affective attitude and student's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im, J. Y., & Kim, M. S. (2014).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67, 117-148
- Kim, M. S., & Jang, C. S. (2012). 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n employe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ffective commitment.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5(1), 101-125.
- Knepper, W., Obrzut, E. J., & Copeland, P. E. (1993). Emotional and social problem-solving thinking in gifted and averag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2, 25-30.
- Lee, C., Jyung, C. Y., Na, S. I., & Kim, J. M. (2010). Developing a Competency Model for Next Generation Gifted Entrepreneurs,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42(1), 155-176.
- Lee, J. H., Park, K. B., Jin, S. K., Ryu, J. Y., Ahn, S. H., & Jin, B. W. (2013). Modeling the Conception of Giftedness in Invention Based on Inventor's Three Main Aptitude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3(3), 435-452.
- Lee, K. W., Koh, J. Y., & Park, S. H. (2007). Gender Differences in Creative Thinking and Creative Personality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Gifted and Gifted Education*, 6(1), 147-162.
- Lee, M. H. (2006). The Family-Strength and Self-efficacy of Gifted Student and Genera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Far East University, Seoul, Korea.
- Linda, K. S. (2008). *Gifted Counseling* Seoul: Pakhaksa. (H. E. Lee Misoon, Trans.).
- Ministry of Education (2013). The 3rd Gifted Educatio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2013-2017).
- Oh, S. 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Leadership and Self-Concep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Olszewski-Kubilius, P.M., Kulieke, M.J., Willis, G.B., Krasney, N.S. (1989). An analysis of the validity of SAT entrance scores for accelerated classes. *Journal for the*

- Education of the Gifted*, 13(1), 37-54.
- Olszewski-Kubilius, P. (2002). Minority and Disadvantaged Gifted: Issues, Perspectives, and Solutions. Featured Paper at the Annual National Curriculum Conference of the Center for Gifted Education, William and Mary College, Williamsburg, VA.
- Park, M. H. (2014). The Effects of Gifted students's Stress on Happiness :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of Education, Daejeon, Korea.
- Park, J. Y., & Oh, H. S. (2005).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found in a new psychological inventory and their implications in selecting "gifted"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1(1), 143-156.
- Renzulli, J. S. (2016). *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In S. M. Reis (Ed.). *Reflections On Gifted Education* Waco, TX: Prufrock Press.
- Rim, H. W. (201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Gifted Educ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Robinson, N. M., & Noble, K. D. (1991).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gifted children*. New York: Pergamon Press.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Denver: Love.
- Son, J. H., (2016). The Influence of Father, Mother-Chil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erceived b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 Perfectionist tendencies as a mediating fa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K. A. (2004). The Effects of Non-intellective Factors and Process variables of the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Mathematical Crea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o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Song, S. J. (2007). The effect of school factors on Underachievement of the gifted children, *The Korean Association of Youth Education*, 15(2), 145-164.
- Sternberg, R. J. (1998). Abilities are Forms of Developing Expertise. *Educational Researcher*, 27, 11-20.
- Van Tassel-Baska, J. (1983). *A Practical Guide to Counseling the Gifted in a School Setting*.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Webb, J. T., Gore, J. L., Amend, E. R. & DeVries, A. R. (2007). *A Parent's Guide to Gifted Children*. Scottsdale, AZ: Great Potential Press.
- Wikipedia. (2018). Retrieved May 28, 2018, from <https://ko.wikipedia.org/>
- Yoon, C. H., Yoon, Y. H., & Kim, H. W. (2004). Intellectually Gifte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77-196.
- Yoon, H. S., & Kim, O. J. (2002). A study of optimism level in the gifted,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2(1), 77-95.
- Yoon, J. K. (2016).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 among Intelligence, Creativity and Self-concept of Gift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Y. H. (2000).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and Counseling for Emotional Developmen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1), 79-101.
- Yoon, Y. H. (2000).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and counseling for emotiona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1), 79-101.
- Oh, E. J. (2008). The Effect of the inter/intra personal intelligence(interpersonal·intra personal program on the Inter/intra personal intelligence and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영재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영재 청소년 총 221명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핵심역량,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영재의 자아개념, 핵심역량, 긍정심리자본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재의 자아개념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심리내적인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내적 특성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영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참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논문접수일자: 2018년 5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18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9월 20일